

사설

통일불사의 과제

정주영씨의 소문이 반복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판문점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부의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물론 최근에 북한의 잠수정이 영해를 침범해서 이러한 햇볕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북쪽이 걸로로는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적화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갈라진 한민족의 통일을 향한 대화와 협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번 잠수정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긴 여정은 결코 평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이다. 차분한 자세로 평화공존의 틀 속에서 통일을 향한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불교계도 당연히 그 통일의 행진대열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단과 여러 불교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불교교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평화통일불교협회의 '금강산문화유적 복원추진사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7월중에 신개사 복원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각종도 금년부터 매년 2억원의 통일기금을 마련해서 북방포교연구소를 설립하여 북한포교에 앞장설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태고종 영산재 보존회도 오는 9월 북한에서 개최될 운이상음악제에서 영산재 시연을 위해 남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러한 불교계의 남북교류의 움직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통일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며 남북한

전문문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는 삼국통일을 이루어 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불교계의 이런 통일불사가 성공을 거두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흥적으로나 단순한 경쟁 의식에서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우선 여기에 필요한 몇가지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적인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남북과 북쪽이 지금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제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사상과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정토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수와 회사의 공력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범불교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실업인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기심을 과감히 버리고 서로서로 돕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둘째, 인재를 길러야 한다.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통일역군을 기르는 불사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인재양성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셋째, 북한불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북한에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재의 정밀조사와 역사적 고증도 이루어져야 한다. 유형문화재의 복원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나 불교행사에 있어서 불교의식의 전파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어서 그 바탕위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내실있는 남북 불교교류가 추진되길 바란다.

실업극복운동 북동포돕기 통일운동

종교계 '한마음 한뜻'

공동성명-평화행진 등 가져

각 종교 지도자들이 경제난 극복과 실업자구제, 북동포돕기와 통일운동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김수환추기경, 강원불교 크리스찬 아카데미이사장 등 3명의 종교 지도자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실업자들의 손잡아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문화방송 한겨레신문이 주관하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정치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 40여명이 위원과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민

간차원의 실업자돕기 운동기구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기금의 자율적인 집행과 아울러 △국민의식 개혁 운동 △실업기금 모금활동 △실업자 구호 및 자활 지원 △민간협력 사회안전망 구축 △21세기 사회보장망 마련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종교지도자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함으로써 각종 실업대책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 민족종교협의회 등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6·25전쟁 48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공동 메

국방부 군부대 점유사유지 정리키로 사찰토지 수용 가능성 조계종 '대책' 부심

국방부가 2001년까지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私有地) 1천8백48만평을 정리키로 함에 따라 일부 사찰의 토지도 수용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망된다.

국방부가 밝힌 사유지 정리방안은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 감정 가격과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구입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는 소유자에게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한 뒤 반환 △계속군이 필요로 하지만 소유주 보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 등은 지

상권 설정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적법한 사용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재무부는 "한번 수용된 토지는 되찾을 수 없을뿐 아니라 대토가 어려울 경우 정제의 유실로 이어진다"며 "지상권 설정을 유도해 최소한 매각은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부대의 사유지 정리 방침과 관련 최근 양평 용문사(주지 의광)는 30여년전부터 20사단 유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지 수용문제를 놓고 해당부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시지를 발표했다. 23일 실업극복국민운동 출범식 직후 가진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메시지' 발표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소모적인 분단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은 기어코 허덕이고 남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남북 정부는 정부대로 통일의 밑그림과 과정을 협의해 나가고, 민간차원에서는 인도적 목적에서의 교류를 점차 넓혀 분단의 벽을 허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메시지 발표직후 김원기 노사정위원장과 오찬간담을 갖고 "정부와 노동계, 기업이 합심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을 보여 줄 것"도 주문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신부)도 21일 장충단공원과 남산 일대에서 펼쳐진 '실직자와 북한동포돕기 남산평화대행진'에 참가해 "실업의 아픔을 함께하고 북동포를 위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자"고 호소했다.

임연태 기자 (yltim@buddhopia.com)



종교지도자들이 사회현실문제에 대한 해법제시에 앞장서며 국민적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진은 23일 출범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공동위원장 월주스님, 김수환추기경, 강원총목사(우측부터).

분야별 전문포교사팀 구성

조계종, 어린이·교도소·군등 12개팀으로

어린이·청소년·군·교도소 등의 포교를 전담할 전문포교사팀이 구성됐다. 이로써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이후 더욱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각종 현장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스님)은 6월 20~21일 화성 신흥사에서 1백40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를 주제로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2차 워크숍을

열고 12개의 포교팀을 구성했다. 분야별 포교팀 구성 현황은 서울·경기지역에 어린이·교도소·경찰 각 1팀, 청소년·군 각 2팀, 지역별로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전주·전북, 광주·전남 각 1팀이다.

이날 구성된 포교팀은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성운·강지연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 中信會 내분 조짐 운영위 소집권 놓고 갈등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운영위원회 소집권을 놓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신도회보를 통해 사퇴성명서를 발표한 송재건씨가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키 위한 운영위원회 6월27일 소집하자 총무원과 김한근 회장직무대행이 반발하고 있다.

김한근 직무대행은 6월25일 기자간담회를 자칭해 "송재건 전회장이 소집한 운영위원회는 사임한 회장의 권한없는 회의 소집"이라

며 "6월27일자 운영위원회 소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건씨측은 "김한근씨는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된 채있는 상태이므로 운영위원회의 추진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예정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추진하는데, 다른 사람을 선임하든지 운영위원들의 뜻에 맡기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7일 운영위원회 성원 여부와 결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주 속보)

한편 총무원은 6월22일 중앙신도회에 공문을 보내 "김한근 회장직무대행은 회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밝히 김씨가 회장직무대행임을 확인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그날이 빨리 오기를...

구독료를 자동이체 하면 편합니다

■ '구독료 자동이체'란?

구독자의 통장계좌에서 현대불교신문의 통장계좌로 매월 구독료가 자동으로 지불됩니다.

■ '구독료 자동이체' 이렇게 좋습니다!

- ① 직접 은행에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 ② 같은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③ 본사는 매달 구독료 청구 지료를 발송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도 간소화 됩니다.
- ④ 6개월이상 계속 자동납부를 하시는 독자에게는 사은품으로 대나무차잔을 증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방법

은행에서 직접 신청

◇ 준비물: 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해당은행의 신문사 이체 계좌번호

◇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정확한 수납관리를 위하여 신청서 꼭 구독료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확인신청을 주십시오.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자동이체 현대불교신문사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245-25-0001-461	평화은행	052-25-0001-512
농협중앙회	053-01-227471	보림은행	002-22-00951-0
한일은행	082-031951-01-201	주목은행	504537-01-000064
신한은행	324-05-012374	외환은행	150-22-01008-2
조흥은행	322-03-00314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74-00104	상업은행	113-04-106884
제주지방은행	50-01-124050	한미은행	100-51057-249
제일은행	100-20-144861		
서울은행	15508-2269109		

향운정주 set 출시 ▶ 향운정주, 청자향로, 고급향

향운정주 - 정성과 정결함이 깃든 향운정주를 사용하십시오.

「향운정주」는 순수 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향운정주」는 그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미타경」과 「법화경」에 유리는 금, 은, 자거, 마노, 산호, 진주등과 함께 극락세계를 장식한 보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향운정주」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영구적인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 방출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또한, 범담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향운정주를 애용하시는 분들의 개별구입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저 최상품의 향과 향로로 향운정주 set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운 정주 set : 향운정주, 청자향로, 고급향



■ 향운정주는

- 유리로 만든 작은 구슬로 쌀과 모래보다 실용적이며 향이 잘 꽃아집니다.
- 사용이 간편하고 반영구적입니다.
- 유리제품이므로 환경오염과는 무관합니다.
- 「향운」은 향운(香雲) 즉 향을 피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株式會社 世湖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7-30
TEL : (02)272-8886/7
FAX : (02)278-6675

- 아미타경
극락세계에는 실로 된 연못이 있어, 물결이기가 넘쳐 흐르며 연못 바닥에는 순금 오리가 깔려 있다. 사방의 길과 계단은 금은 유리 파리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누각이 있으니 역시 금은 유리 파리, 자거, 진주구슬로 아름답게 장식했다.
- 법화경
악귀나수소로라도 청기영호하면 죽도록하여 악귀적천의중생이 위구 금은 유리 자거 마노 산호 호박 진주등보하여 김이데케킨 기사종류이 위구신법하여 피타나팔국하여도 기등에 악귀내지말면이 장관세로보살정하면

향운정주 취급점을 모읍니다.

· 실용신안등록 97-18095

